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1992. 5. 20

余仁坤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1. 序 論	3
2. 러시아聯邦의 改革內容과 問題點	4
가. 政 治	5
나. 經 濟	9
다. 外 交	15
3. 改革政策의 緩和趨勢	18
가. 保守派와의 妥協摸索	19
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緩和	19
4. 러시아聯邦의 改革展望	20
가. 엘친의 政治位相 強化	21
나. 急進 經濟改革 基調維持	23
다. 「新思考」 外交基調 維持	24
5. 韓·러關係 現況	25
가. 善隣友好關係 擴大	26
나. 經協關係 增進摸索	28
다. 韓半島 非核化 共同努力	30
라. 러聯邦의 南北對話 支持	31
6. 韓·러關係 展望	32

빈 면

1. 序 論

- 보수세력에 의한 쿠데타 실패(1991.8) 이후 浮上한 엘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人道的 社會主義를 실현하려는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과 점진적인 개혁속도에 반대하여 러시아공화국 독자적으로 西歐모델에 의한 市民民主主義體制로의 전환과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世界共同體로의 編入을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음. 러시아연방정부는 保守派와 改革派間의 권력투쟁, 경제파탄, 財政赤字, 民族主義의 대두, 각 공화국들의 독립선언 등으로 인한 고르바초프의 失脚과 소연방의 붕괴로 「獨立國家聯合」이 새로이 창설(1991.12.21)되자 舊蘇聯邦을 법적으로 계승하였으며, 엘친 대통령은 기존의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엘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의 국내정치와 경제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露出되고 있어 러시아연방의 개혁전망은 不透明한 상태임.
- 한편, 韓·蘇關係는 소련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突破口로 하여 國交正常化(1990.9.30)가 수립된 후 계속 발전되어 왔음. 소연방의 붕괴 이후에도 韓·러關係는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諸分野에서 擴大되고 있음.

- 따라서 本 研究는 한국과 러시아연방의 관계가 새로운 轉機를 맞게될 韓·러 頂上會談(1992년 9월 서울 開催 豫定)을 앞두고 러시아연방의 개혁과 한·러관계의 現況을 分析하고 러시아연방의 개혁이 韓·러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豫測하는데 目的이 있음.

2. 러시아聯邦의 改革內容과 問題點

- 엘친 대통령의 長期的인 目標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이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체제를 서구모델에 의한 民主主義體制와¹⁾ 市場經濟體制로 轉換시키고 러시아연방을 世界共同體에 編入시키는 것임.
- 엘친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政治權力을 강화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急進的인 改革政策을 추진하고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外交基調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연방의 世界共同體로의 編入을 모색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은 현재 급진개혁에

1) 엘친 대통령은 서구민주주의가 새로운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理想과 符合된다고 밝힌 바 있음. Barbara Kerneck, *Boris Jelzin : Ein Portrait* (München: Wilhelm Heyne Verlag, 1991), p. 68.

따른 문제점들로 政治不安定과 經濟混沌 狀態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옐친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주요과제를 政局安定에 두고 保守派와 타협을 하면서 경제개혁의 強度를 완화하고 있음.

가. 政 治

- 옐친 대통령은 開發獨裁型 權力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改革派와 保守派間의 權力鬭爭, 러시아연방내 소수민족들의 獨立運動, 「독립국가연합」의 龜裂 등으로 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의 정치상황은 不安定한 상태가 持續되고 있음.

(1) 政治改革의 主要內容

- 옐친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이 창설 (1991.12.21) 되기 이전에 러시아공화국을 독자적인 市場經濟體制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급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布告令 宣布權, 地方政府 人事權 등 非常大權을 러시아공화국 人民代表大會로부터 인정받았음 (1991.11.1).
- 옐친 대통령은 이와 같은 開發獨裁型 權力을 기초로 러시아공산당 完全해체령 (1991.11.6) 을 내리고 러시아공

화국의 정부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1년간의 非常親政體制를 구축하였음.

- 또한 러시아연방정부내 改革派는 옐친 대통령이 급진적인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992년 초 의회의 승인없는 대통령의 閣僚任命權, 의회가 채택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拒否權, 대통령이 임명한 最高裁判官에 의한 議會解散權 등을 규정하는 의회로부터 독립적이고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 憲法案을 마련하였음.

(2) 政治改革의 問題點

(가) 保·革間 權力鬭爭

- 소연방의 붕괴로 既得權을 상실한 舊蘇聯 공산당원, 공산주의 추종 관료들인 노멘클라투라, 일부 군부세력, 의회내 보수파들은²⁾, 경제난 악화 등 改革 副作用으로 국민들의 옐친 대통령 지지가 약화되자 러시아의 西方化와 시장경제 도입 및 대통령 권한강화에³⁾ 반대하고

2) 대의원 수가 1,046명인 러시아연방 人民代表大會는 舊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주주의자, 개혁파, 반개혁파 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중 약 800명이 保守派로 알려져 있음. *Die Welt*, 1992. 4. 13 參照. 보수파가 다수인 원인은 1990년 3월 고르바초프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총 대의원수의 1/2을 黨官僚로 임명하였고 나머지 1/2은 民主選舉로 선출되었기 때문임.

새로운 경제프로그램 등을 主張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엘친 대통령의 政治的 基盤이 위협받고 있음.

- 개혁정책에 반대하여 엘친의 辭任과 舊蘇聯邦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대규모 示威가 1992년 1~2월 모스
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발생되었음.
- 소연방 붕괴 이후 최초로 開催된 러시아연방 제6차
인민대표대회(1992.4.6~21)에서는 소연방 해체 승
인⁴⁾, 러시아연방의 舊蘇聯 계승, 헌법개정, 정부와 의
회의 권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保守派와 改革派間
의 權力鬭爭이 노출되었음. 개혁정책이 지속되지 않
으면 240억달러의 재정지원이 中斷될 것이라는 서방
측의 경고로 인민대표대회는 엘친 대통령의 급진경제
개혁을 지지하는 決議案을 채택하였으나, 保守派가
제시한 憲法改正案(대통령의 議會解散權 불인정, 대
통령의 閣僚任命時 의회의 승인필요, 대통령이 제출
한 법률안에 대한 최고회의의 拒否權 신설)이 暫定承
認됨.⁵⁾

3) 엘친 대통령은 總理職과 國防長官職을 겸임하고 있다가 그라초프 러시아
군 최고사령관을 國防長官에 임명(1992.5.18)하였음.

4) 人民代表大會는 1992년 4월 20일 「독립국가연합」의 創設과 이에 대한 러
시아연방의 加入을 승인하였음.

5) 러시아연방 新憲法의 최종결정은 올 가을 開催될 예정인 제7차 인민대표
대회로 延期되었음.

(나) 少數民族들의 獨立運動

- 러시아연방내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은 러시아연방의 장래를 불안케 하는 또 다른 要因이 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의 최대 自治共和國인 타타르와 야말로 네네츠 民族地區, 코미 自治共和國, 야쿠트 自治共和國는 독립을 선포하고 이미 모스크바와 관계를 단절하였거나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음.

(다) 「獨立國家聯合」의 龜裂

- 중앙정부가 소멸됨으로써 舊蘇聯邦의 공화국들이 主權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각 공화국들의 利害 不一致로 「독립국가연합」이 통합보다는 龜裂現狀을 보이고 있음.
- 공화국최고회의 의장들간에 合同議會 창설을 위한 회의가 개최 (1992.2.27) 되었으나 우크라이나가 중앙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에 반대함.
- 「독립국가연합」의 存續與否와 직결된 統合軍 創設問題가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 (1992.2.14) 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 (3.20) 에서 11개국간에 중점 논의되었으나 獨自軍 創設을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의 반대로 합의가 導出되지 못했음.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도 금년 5월 150만명 규모의 獨自軍을 창설키로 결정함.

- 「독립국가연합」의 軍事同盟體 창설을 위한 타슈켄트條約에 러시아연방, 카자흐 등 6개국만이 署名하고,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키르기스 등 5개국은 署名을 거부함 (1992.5.16).
- 러시아연방,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멘, 카자흐 4개국은 50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카스피海 艦隊의 單一 統制 維持에 관한 협상에서도 실패하여 合大분할에 合意함.
- 이외에 「독립국가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국가간 利己主義, 民族紛爭 (몰도바 內戰, 나고르노-카라바흐 紛爭, 그루지야 流血事態), 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함대 所有權 紛爭, 외교권 국가들간의 經濟統合 움직임 등임.
- 러시아연방은 위와 같은 「독립국가연합」의 完全龜裂을 우려하여 벨로루시, 카자흐, 키르기스, 아르메니아와 5개국으로 構成되는 「중추국가연합」의 創設을 構想하고 있음.

나. 經 濟

- 엘친 대통령은 경제면에서의 당면목표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경제안정, 생필품과 소비재 공급에 두고 急進的인 經濟改革政策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자유화정책의

副作用, 민영화정책 수행상의 難点, 군수산업의 民需用 전환차질, 「독립국가연합」의 경제적 분열, 서방지원의 부족 등으로 러시아연방의 現 經濟狀況은 不況下의 超인플레이션 상태에 있음.

(1) 經濟改革의 主要內容

- 엘친 대통령은 행정가격에 의한 가격왜곡현상 시정, 생필품에 대한 국가보조로 인한 재정적자 축소, 공급증가를 통한 물자부족 해소 등을 위하여 價格自由化 및 私有制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急進經濟改革案을 발표(1991.10.28)하고 약 90%의 소비재와 80%의 공산물에 대한 價格自由化政策을 실시(1992.1.2)하였음.
- 러시아연방정부는 國營企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자율성과 인센티브의 缺如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러시아공화국 民營化計劃의 기본규정」을 발표(1991.12.29)하고, 기업세계 혜택을 확대하는 긴급조치와 1992년 말까지 총 14만개의 국영상점중 75%를 民營化하기로 하는 後續措置(1992.2.19)를 취했음.
- 엘친 대통령은 改革補完策으로 부가세율 인하, 군인봉급과 연금인상 등의 경제긴급조치를 발표(1992.2.19)하고, 러시아연방정부는 수익금을 군처우 개선에 사용하

기 위하여 공군기 1천6백대의 수출을 허용하는 한편, 일부 지방당국에 탱크 등 재래식 무기의 판매를 許可함. 또한 在來式 潛水艦 3척이 이란에 매각될 예정임.

- 엘친 대통령은 農業分野 改革擔當인 루츠코이 부통령에게 군수공장의 농기구 제조공장 또는 식품가공공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命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布告令에 서명 (1992. 2. 27)했음.

(2) 經濟改革의 問題點

(가) 價格自由化政策의 副作用

- 러시아연방의 現 경제혼돈 원인은 價格自由化政策, 國營기업의 민영화와 농업사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金融制度 및 稅制整備가 소홀하고 對外貿易이 급격히 減少하여 경제가 극도로 부진한 시기에 실시되었기 때문임.
- 價格自由化政策은 물가폭등, 생산력 저하, 실업을 증가, 통화가치 하락 등을 誘發시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⁶⁾ 1992년 1~2월 대규모 시위의 한 動因이 되었음.

6) 1991년 12월부터 1992년 1월 사이에 物價가 350% 상승하였고 GNP는 16~18% 감소되었으며 1991년 7월 1만 6천명이던 失業者가 1992년 1월 7만명으로 증가되었음. 1992년 2월 1일 輿論調査에 의하면 72%의 응답자가 생활에 不滿을 나타내고 44%가 가격자유화에 反對했음. *Pravda*, 1992. 2. 1.

(나) 민營化政策 遂行上의 問題點

- 러시아연방 정부는 현재까지 1천7백여개의 기업을 민營化하는 미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러시아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에 管轄權과 지분을 둘러싼 摩擦이 있음.
 - 대상기업에 대한 정확한 評價가 어려움.
 - 국민들이 기업을 구입할 財源이 없음.
 - 루블화의 兌換性이 확보될 때까지는 國營企業의 민營化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다) 軍需產業의 民需用 轉換蹉跌

- 러시아연방 경제개혁의 關鍵은 軍需產業의 民需用으로의 신속한 전환으로서 군수산업체들의 민수용품 생산은 1990년에 비해 작년 한햇동안 48.3% 增加되었으나, 국내정세 불안과 경제난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해외유출, 민수용품 생산을 위한 군수용품 원자재의 不適合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음.

(라) 「獨立國家聯合」의 經濟的 分裂

- 舊蘇聯邦의 경제체제는 中央統制型 經濟이었기 때문에 현재 「독립국가연합」 11국 간에는 극심한 地域間 經濟

不均衡과 極端的으로 非合理的인 分業體系가 이루어져 있음.

- 중앙아시아 4개국의 勞動生産性은 발틱 3국의 62%, 러시아연방의 73%에 지나지 않음.
- 쉘지역의 수송체계, 통신체계,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이 單一組織으로 되어 있음.

- 「독립국가연합」 11국은 16개 經濟協力 方案을 마련 (1992.3.13) 하였으나 지역간 새로운 經濟結束의 形成, 독자화폐 도입, 과학과 기술능력의 分散, 低開發地域으로부터 高開發地域으로 자금유입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다) 西方支援의 不足

- 서방선진 7개국은 舊소연방 정부와 개별공화국들이 810억달러에 달하는 外債償還을 공동책임지는 경우 經濟援助를 하기로 하였으나 소연방의 붕괴 이후 차관에 대한 債務保證 主體의 缺如로 현재까지 서방의 지원은 식료품과 의약품 등 人道的 援助에 한정되어 있으며 재정과 기술지원은 微弱한 상태에 있음.
- 러시아연방이 서방원조를 誘導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서방선진 7개국은 「독립국가연합」에 辨濟延期의 대상

이 되고 있지 않는 채무와 이자의 지불을 촉구하고 있으나, 「독립국가연합」은 財政이 不足한 상태에 있음.

서방선진국들은 러시아연방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약속된 總 240억 달러 원조중 60억 달러 루블화 安定化基金과 40억 달러 借款을 얻기 전에 年末까지 인플레이션을 月 1~3%까지 낮추고 재정적자를 국민총생산(GNP)의 1% 前後까지 감소시키며 연금 등 社會保障制度를 合理化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要求하였음.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자체가 올 러시아연방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을 1천%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연방의 金保有量은 170만톤, 外換 保有高는 6천만달러 수준에 불과함.

미국은 현재 國內經濟 沈滯로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을 재정적으로 대규모로 지원할 資金이 없으며 國內支持도 없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원조를 농업, 운수업 등 基幹產業에 대한 인도적, 기술적 원조에만 집중하고 지방에 대한 외국인간투자의 추진 등 地方計劃을 補充하는 정도로만 고려하고 있음.

일본은 현재 러시아연방에 대한 경제지원문제를 平和條約 締結 및 北方領土問題 해결과 連繫시키고 있음.

러시아연방에 대한 서방 구호물자중 식품과 의약품의 80%가 공항, 철도, 세관, 경찰, 보안군인, 운송회사,

창고책임자 등을 통해 不法流出되거나 증발되어 貧困
層에게는 단지 10%만 전달되고 있음.

다. 外 交

-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執權後 국내경제 회복
의 필요성과 세계가 相互依存的인 統一體로 발전되고
있다는 認識으로부터 안보차원을 넘어선 過多軍備에 의
문을 제기하고 이념대립과 군사팽창정책보다는 對話와
緊張緩和를 통한 信賴構築이라는 「新思考」를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음.
-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新思考」 外交政策은 新平和秩序
를 구축하고 소련을 정치·경제적으로 世界共同體에 編
入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바, 엘친 대통령의 대
외정책은 위와 같은 고르바초프의 外交政策基調를 維持
하고 있음. 그러나 핵원료와 핵기술의 海外流出 및 군
사무기 對外販賣는 서방의 비판요인이 되고 있음.

(1) 外交政策의 主要內容

(가) 新平和秩序 構築努力

- 러시아연방은 新平和秩序를 구축하기 위하여 對內外的
으로 軍備統制와 軍縮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 지역분쟁 해결에도 적극 參與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은 對內的으로 군사비 삭감, 군병력 및 핵무기 감축 등의 措置를 취하고 있음.
 - 올해 예산중 군사비 지출이 18%로 대폭 削減되었고 軍兵力이 70만명 감축될 계획임. 발트 3국 주둔 舊소련군이 리투아니아를 始發로 50년 만에 철수(1992.3) 하기 시작함.
 - 엘친 대통령은 부시 미대통령의 核武器 減縮案에 反應하여 약 6백기에 달하는 지상 및 해상 전략핵미사일에 대한 警戒警報수를 해제(1992.1.29) 했으며, 장거리 핵폭격기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선언함. 이는 舊소연방 해체 후 최초의 軍備減縮發表임.
 - 코지레프 외무장관도 다탄두 장거리 미사일 全量廢棄用意를 밝혔으며(1992.3.10), 既存의 戰略核武器가 80%까지 감축되어 프랑스식의 순수 방위력으로 전환되고 전술핵무기는 전면 폐기될 예정임.
 - 러시아연방은 미국을 더 이상 敵對國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軍事協力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은 舊蘇 미사일의 미국 겨냥을 철회하였으며 전략무기 추가감축 수준의 早期妥結을 위해 미국

과 협상을 加速化하기로 함.

- 엘친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방위구상 (SDI)에 러시아 연방의 첨단군사기술을 결합할 수 있음을 밝히고 미국과 미사일 조기경보센터의 共同設立을 촉진하기로 합의함.
- 러시아연방은 舊蘇聯이 대규모 원조를 하였던 쿠바에 대하여 경제원조와 소련·쿠바간 무역협정을 중단시켰으며 2천명의 軍事顧問團을 철수시킬 예정임. 감란만 駐屯 軍事顧問團을 5월까지 모두 철수시키고 2천명의 주둔병력도 철수시킬 계획임.
- 러시아연방은 「독립국가연합」 10개국과 더불어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와 북대서양협력회의 (NACC)에 公式加入하고 冷戰終熄後 安保體制의 礎石으로 간주되는 유럽내 재래식무기 감축협정 (CFE)을 4개월 안에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연방은 모스크바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등 26개국이 참가한 中東會談 第3段階 多者間會議를 개최 (1992.1) 하여 중동지역 懸案을 공동 논의했으며 유엔 평화유지군 先發隊를 유고에 파견했음 (1992.3.14). 유고에 배치될 總兵力은 9백명 수준으로 알려짐.

(나) 世界經濟共同體로의 編入摸索

- 러시아연방은 세계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촉진하고 대외경제 업무를 담당할 對外經濟關係部를 신설(1992.2) 하였으며, 소련이 자본주의국가들의 經濟協力體라고 비난하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정식 가입(4.27) 하였음.

(2) 外交政策의 問題點

- 蘇聯邦의 붕괴로 軍統制가 弱化되어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의 核원료와 核기술 海外流出은 國際情勢 不安要因으로 등장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연방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構成國들은 보유무기와 첨단군사기술을 外貨收入源으로 간주하고 해외수출을 감행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과 摩擦을 빚고 있음.

3. 改革政策의 緩和趨勢

- 엘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강화와 急進 經濟改革政策이 上記와 같은 정치불안정과 경제혼돈을 야기시키자 政治的 役割을 再定立하고 急進 經濟改革政策을 완화하여 國內정세를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음.

가. 保守派와의 妥協摸索

○ 소연방이 붕괴되기 이전 옐친 대통령은 오랫동안 苦痛 받은 국민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歷史的 使命感을 가지고 공산주의체제를 清算하고 서구모델에 의한 民主主義體制로 이행하는데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정부와 改革運動을 직접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적인 指導者이었음. 그러나 현재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權威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연방 情勢安定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가안정의 保障者로서 保守派와 타협하며 직접적인 대립을 回避하고 있음.

-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이 소련붕괴 이후 최대의 政治危機에 직면했던 제6차 인민대표대회의 마지막 10일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保·革間의 政治鬭爭에 직접적으로 휘말려들려 하지 않았음.
- 옐친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구조를 개편하고 자신의 강한 권력에 대한 保守派의 불만을 解消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총리직을 辭任하겠다고 밝힘.

나. 急進 經濟改革政策의 緩和

○ 현재 옐친 정부는 市場經濟로의 移行을 위하여 사회적

폭발과 保守派의 反撥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폴란드式의 “쇼크療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體制轉換에 따른 여러가지 副作用을 줄이기 위하여, 특히 의회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적인 經濟回復 時點을 연기하면서 改革速度를 늦추고 있음.

- 엘친 대통령은 1992년 4월 5일 急進 改革政策은 지속될 것이나 強度가 약간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 대규모 私有化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
- 赤字없는 예산에 대한 公約이 포기되었음.
- 1992년 가을까지 생활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언급이 중지됨.
- 경제 “쇼크요법”의 創案者인 가이다르 第1副總理 겸 財務長官의 재무장관직과 부르블리스의 부총리직을 박탈함.

4. 러시아聯邦의 改革展望

- 엘친 대통령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연방 改革의 주요내용과 문제점들을 綜合해 볼 때 러시아연방의 改革은 엘친 대통령의 殘任期間(1996년 7월까지) 동안 국내적으로 政治不安定과 經濟混亂이 지속될 전망이다.

- 엘친 대통령은 이를 克服하고 자신의 政治位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強度가 다소 약화된 急進 經濟改革政策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외교면에서는 新平和秩序를 구축하고 世界共同體에 편입되려는 노력이 強化될 것으로 보임.

가. 엘친의 政治位相 強化

- 엘친 대통령은 국내정세 안정을 위하여 急進 改革政策의 強度를 완화하면서 保守派와 타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고르바초프 失脚의 경험으로부터 改革派와 保守派 사이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改革政策 目標를 관철하려 할 것임.
- 그러나 러시아연방내 保守派들과 民族主義者들은 자신의 既得權 喪失과 西方經濟로의 從屬을 우려하여 엘친 대통령의 급진개혁정책과 러시아연방의 西方化를 계속 牽制하려 할 것임.
- 향후 러시아연방의 政局은 保·革間 갈등이 지속될 것이나 경제개혁 成功與否가 엘친의 정치생명을 左右할 것임.
 - 엘친 대통령은 제6차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실시된 輿論調査에서 人氣가 37%에서 43%로 상승되었으나 價格自由化政策에 대한 불만과 經濟難 持續 등으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음. 국민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美大統領과 같이 現 經濟難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第3의 人物이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따라서 엘친 대통령은 國內政治不安을 解消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強化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할 것으로 展望됨.

— 엘친 대통령은 제6차 인민대표대회에서 暫定承認된 保守派의 헌법개정안에 대항하여 國民投票를 통한 헌법개정으로 의회의 挑戰을 극복하고 자신의 政治的 位相을 提高시키려 할 것임.

— 엘친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지원을 이용한 經濟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龜裂現象을 보이고 있는 「독립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을 「중추국가연합」을 기초로 再結合시키려 할 것임. 이와 關聯하여 엘친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의 崩壞에 따른 주변지역의 不安定, 특히 중앙아시아 4개 回教國의 회교권 편입에 의한 중동지역의 勢力不均衡이 서방의 이익에 背馳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방측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임.

— 엘친 대통령은 軍部勢力을 회유하기 위하여 군인 생활개선에 필요한 措置들을 취할 것임.

나. 急進 經濟改革 基調維持

- 엘친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非常大權을 보유하게 되어 경제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러시아연방이 국제통화기금과 世界銀行에 정식가입(1992.4.28)함으로써 總 240억달러에 달하는 財源을 확보하게 되었음. 러시아연방측은 1년 내지 1년 반후에 시장경제 메카니즘이 定着되어 국내경제가 安定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서방으로부터의 劃期的인 대규모 재정과 기술지원이 없는 한 현재와 같은 經濟混亂이 계속되어 러시아연방 경제가 安定段階에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됨.
- 엘친 대통령은 經濟難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改革 措置를 취할 것으로 보임.
 - 엘친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서방의 經濟支援을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國際金融機構와 긴밀히 협력할 것임.
 - 엘친 대통령은 市場經濟로의 전환을 위하여 기업과 농업의 私有化, 중앙계획경제하의 稅制改革, 군수산업의 민수용 轉換, 소비재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價格自由化 등 기존의 急進經濟改革 基調를 유지할 것이나 經濟混亂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強度가 다소 완

화된 推移를 보이고 있는 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국유산업의 民營化 촉진을 위하여 외국기업이나 개인에게 門戶를 개방할 것임.
- 엘친 대통령은 軍需産業의 民需轉換을 위한 계획집행에 필요한 資源을 조속히 확보하려 할 것임.
- 엘친 대통령은 韓國을 비롯한 서방측과 대외채무상환 및 차관이자지급 연장을 위한 交渉을 할 것임.

다. 「新思考」 外交基調 維持

- 러시아연방은 國內問題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對外政策을 큰 路線變更 없이 지속적으로 遂行할 것으로 전망됨.
- 新平和秩序를 구축하기 위하여 「合理的 充分性」에 입각한 防禦的 軍事戰略이 유지될 것이며, 전세계적 次元과 지역적 次元에서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해 미국과 더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것임. 또한 러시아연방은 세계강국으로서의 정치적 役割堅持를 위해 地域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積極 參與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연방은 世界共同體로의 編入을 위해 長期的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유럽공동체(EC) 등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연방은 第3世界로의 核확산에 대한 서방측의 憂慮를 불식시키고 경제협력을 誘導하기 위하여 核무기와 核기술 및 첨단군사기술에 대한 통제를 強化할 것으로 보임.
- 고르바초프의 經驗으로부터 서방측의 支援不在는 개혁정책 실패 뿐만 아니라 자신의 失權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葉欽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對西方外交를 강화할 것임. 葉欽 대통령의 失脚時 별다른 代案을 갖고 있지 못한 西方側은 사태악화를 우려하여 러시아연방의 改革基調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展望됨.

5. 韓·러關係 現況

- 러시아연방은 強大國들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交叉되고 있는 亞·太 地域의 군사적 안정유지를 當面한 懸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세계공동체로의 編入政策 一環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음.

- 소연방 붕괴 이후 韓國은 蘇聯의 법적 繼承國인 러시아 연방과의 關係를 重要시하고 있으며, 國內經濟發展을 위해 對外環境의 安定化를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연방도 韓國과의 友好關係 擴大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연방은 韓國과의 善隣友好와 經濟協力 增進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 非核化, 南北對話 支持 등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肯定的인 役割을 하고 있음.

가. 善隣友好關係 擴大

- 北方政策을 추진하던 韓國과 韓國으로부터 경제 및 기술원조를 기대하던 소련의 利害一致로 양국은 正式 外交關係를 수립 (1990.9.30) 하고 關係를 발전시켜 왔으나 蘇聯邦이 붕괴되었음.
- 韓國정부가 러시아연방을 소련의 法的 繼承國으로 승인 (1991.12.27) 한 이후 정치면에서 양국간에는 善隣友好關係가 擴大되고 있음. 엘친 大統領의 訪韓 (1992년 9월 豫定) 을 앞두고 양국간의 懸案問題 調整을 위하여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外務長官이 訪韓 (1992.3.17~19) 하여 양국간 外相會談이 개최되었음.
 - 양국 外무장관은 友好협력關係 強化, 韓半島와 亞·太

地域 狀況, 양국간 경제관계, KAL機 事件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하였으며, 러시아연방측은 한국과 同伴者 關係 이상의 潛在的 同盟國關係 수립을 희망하고 있고 군사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힘.

— 自國民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兩國 領事關係에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사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비자발급에 관한 諒解覺書가 調印되었음.⁷⁾ 양측 실무자들이 열린 대통령 訪韓시 체결될 韓·러 善隣協力條約을⁸⁾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양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러시아연방은 한국측에 KAL機 격추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제공기로 약속함.

— 소연방 붕괴 이후 최초로 개최된 한·러 外相會談의 意義는 양국이 경제협력 재개를 확인하고 국제문제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대화통로를 구축하였다는데 있음.

○ 러시아연방 정부는 亞·太地域의 중요성을 勘案하여 외무부내에 亞·太總局을 신설하고 駐韓大使에는 前 태평양·남동아시아 국장 파노프(5월 부임예정)를 임명한 반면, 駐北韓大使에는 前 극동 인도네시아局 한국담당

7) 駐韓 蘇領事館은 1990년에 6천명, 1991년에 1만 7천명의 한국인에게 소련 旅行과 訪問을 위한 비자를 發給하였음.

8) 한국정부는 조약의 공식명칭을 「한·러시아 우호협력조약」으로 할 방침임.

부국장 파데예프를 임명하였음. 이는 러시아연방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음.

- 한·러간 과학·기술협정에 따라 尖端科學 技術을 보유한 러시아인 110명이 올해 한국 국내기관에 채용될 예정이며, 폴토라닌 러시아연방 公報長官이 訪韓하여 (1992. 2) 한국과 언론, 출판, 방송, 정보 분야에서 협력키로 합의하였음.

나. 經協關係 增進摸索

- 러시아연방은 한국의 借款 및 산업과 농업분야 개발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국을 무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相對國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 러시아연방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必要로 하고 있음. 經協關係의 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양국은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국의 對러시아 수출과 차관문제는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음.
- 兩國間에 오호츠크海 漁業協定이 체결 (1992.2.8) 됨으로써 한국의 원양업계가 북태평양, 오호츠크海, 캄차카海에서 操業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러시아연방 정부는 최근 한국기업들의 對러시아聯邦 합작투자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全擔할 企業 「코로스社」를 설립하였음.
- 그러나 1991년 6억 3천만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對러시아연방 수출이 러시아연방측의 外貨支給 凍結措置로 1992년부터 中斷된 상태임. 1992년 1/4분기 對러시아연방 수출 1억 7천만달러는 전대차관용 수출의 올해 선적분과 외국은행에 외화를 豫置해둔 러시아연방 민간기업들의 수입분임.
- 러시아연방은 소연방의 붕괴로 1991년 12월 27일 이후 중단된 한국의 소비재借款을 조속히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이 소련에 提供키로한 30억달러 借款(현금차관 10억달러, 소비재차관 15억달러⁹⁾, 플랜트 수출차관 5억달러) 중 현금차관은 全額 提供되었으며 1991년도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 7천만달러는 이미 수출되었음. 그러나 1991년도 소비재차관 殘餘分 3억 3천만달러 수출은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支給保證主體의 불확실로 移行이 보류되었음.
 - 「독립국가연합」소속 국가들이 經協借款의 채무보증

9) 消費財借款 15억달러는 1991년 8억달러, 1992년 5억달러, 1993년 2억 달러를 提供키로 되어 있음.

승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의해 이미 舊蘇聯에 지급된 14억 7천만달러의 상환이 不透明해 지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은 現金借款에 대한 이 자지급 不可를 통보해 왔음. 또한, 러시아연방 정부는 最近 舊蘇聯의 對北韓 채권 30여억달러와 對韓國 채무의 相計를 한국정부에 요청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다. 韓半島 非核化 共同努力

- 한국정부는 南北對話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平和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韓半島 非核化宣言」(1991.11.8)을 하고 駐韓美軍의 핵무기를 철수시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성명(1991.12.18)을 통해 한국내에 핵이 不在함을 對內外的으로 천명하였음. 接境地域에서의 핵不在를 國益과 연결시키고 있는 러시아연방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非核化政策을 추진하고 있음.
-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은 訪韓時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協力하지 않을 것과 북한의 핵문제를 他國과 계속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유엔安保理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음. 또한 코지레프는 국가보안위원회(KGB)로부터 홀

러나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폭탄 雷管開發 보도는 信憑性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러시아연방은 南北間 「한반도의 非核化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1.12.31),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1992. 1.31) 과 核査察 수용으로 한반도 非核化 계획에 대한 중대한 障礙物이 제거되었다고 보고 있음.
- 한국정부로부터 핵不在를 확인받고 만족을 표명한 러시아연방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국제기구와 함께 확인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라. 러聯邦의 南北對話 支持

- 러시아연방은 南北對話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의 정의롭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해결을 希望하고 있음.
- 러시아연방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와 「한반도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의 採擇으로 남북대화가 매우 부드럽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반세기 동안 지속된 南北間 不信이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연방은 남북한이 서로 타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불신이 除去되지 않고 있고, 한국측이 북

한의 核査察 문제와 관련하여 더 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음.

- 1991년 12월 27일자 「루스카야 가제타」(러시아신문)紙는 獨逸式 吸收統一 方式을 한반도 통일의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음. 또한 로가초프 옐친 大統領 特使는 訪日中(1992.3.13)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까지는 兩國의 自主的인 行動에 맡길 수 밖에 없으나 그 후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의 頂上들이 참가하여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多國間 協議의 場이 마련될 수 있을 것”(「東亞日報」, 1992.3.14) 이라고 말함으로써 러시아연방이 장차 한반도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關與할 意思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6. 韓·러關係 展望

- 러시아연방의 國內情勢는 옐친 大統領의 잔임기간 동안 政治不安定과 經濟混亂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諸分野에서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한·러관계는 옐친 大統領 訪韓時(1992년 9월 豫定) 체결될 善隣協力條約을 契機로 현재보다 더 鞏固化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현재 한국과 러시아연방이 善

隣友好協力 關係를 구축하여 양국간 평화, 안보, 경제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상호관계에서 利害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의 對러시아연방관계에서 懸案은 한반도 平和定着을 위한 협조, 한국의 統一政策에 대한 지지, 경제·과학·기술협력, KAL機 사건의 해결 등인 反面, 러시아연방의 對韓關係에서 懸案은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한 한반도의 緊張緩和와 非核化, 한국으로부터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자본, 기술, 소비재를 유도하는 것임.
- 러시아연방은 南北對話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의 核査察問題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支援하면서 남은 借款의 早期執行, 경제협력의 확대, 양국관계의 潛在的 同盟國으로의 발전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한반도 周邊 4強中 유일한 南北韓 同時 修交國인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에 대한 影響력을 확대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자신의 位相을 확립하려 할 것임.
-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연방이 북한과도 관계를 계속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冷戰時代와 같은 러시아연방의 일방적인 對北 支持를 견제하고 러시아연방으로 하여금 남북간에 現實的이고 均衡된 立場을 취하도록 誘導해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은 러시아연방의 국내정세 불안이 東

- 北亞秩序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協力強化를 통해 러시아연방의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에 이바지해야 할 것임.
- 한국은 러시아연방과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을 증대시키되 經濟面에서는 한국의 수출품 등에 대한 外貨支給 凍結措置 해제, 對韓國 債務와 對北韓 채권의 相計가 아닌 債務全額 승계, 현금차관에 대한 이자지급 續開 등을 계속 촉구하거나 또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措置를 취해야 할 것임.
 - 한국정부는 엘친 대통령의 訪韓을 계기로 향후 한·러 양국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국은 資本보다는 산업과 농업기술을 支援하며 經濟多邊化를 위하여 시베리아 및 러시아연방 極東地域 開發에 적극 參與해야 할 것임.
 - 한국정부는 우리의 安保問題와 對러시아연방 經協問題를 연계시켜 엘친 대통령의 訪韓 以前이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자제와 核개발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의 密搬出 防止를 러시아연방 정부에 要請해야 할 것임.
 - 한국은 韓·美 同盟關係와 韓·日關係에 대한 副作用을 고려하여 現 時點에서는 러시아연방과의 軍事的 同盟關係 수립을 피해야 할 것임.